

# 황후기

1990년대를 맞이하며 한국의 사회운동은 급속도로 분화되었다. 이는 1987년 6월항쟁의 부분적 승리에 기초한 김영삼 정부의 등장과 체제 내 민주화의 일정한 진전을 가능하게 한 사회운동의 성장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소비에트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후폭풍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후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위해 투쟁하던 많은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좌표를 잃고 방황하였으며 이와 맞물려 열려진 합법공간의 신사회운동으로 이전해 갔다. 그리하여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대표되던 한국 사회운동도 여성, 환경, 평화, 지역운동 등으로 자신의 외연을 확장하며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갔다.

1990년대를 거치며 민중가요운동도 많은 변화를 겪었음은 물론이다. 1980년대 언더그라운드 음악과는 따로또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던 민중가요운동은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1990년대 초반 각 지역과 부문별로 수많은 노래패가 건설되었으며 권진원, 김광석, 안치환과 같은 민중가요권 출신의 가수들이 공중파를 타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노래를 찾는사람들'이 주류 공연계를 상징하는 세종문화회관으로 당당히 입성하여 티켓 매진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며 기업을 토한 것도 이즈음의 일이다. 정태춘의 헌신적인 투쟁에 힘입어 음반사전검열제도가 철폐되고 한국 대중음악 역시 강산에, 서태지, 신해철, 015B등의 뮤지션들과 인디밴드들의 활동으로 풍성해지던 성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음악 내외의 변화를 거치며 민중가요운동 역시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화와 해체의 과정을 겪게 된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1990년대 중반까지도 대체로 팀 중심의 활동에 기초해 있던



민중가요 창작문화 속에 개인 창작자들의 출현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이는 팀이라는 집단적 활동으로는 자신의 음악적 욕구를 내밀하게 드러낼 수 없었던 상황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자 하는 창작자들은 과감하게 솔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민중가요의 음악적 폭은 더욱 넓어졌다.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개인적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개인 창작자들의 작품은 기존의 민중가요가 선보여 온 질감이나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내용의 노래들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박창근이 펼쳐오고 있는 음악작업은 특히 주목할만하다.

## 개인 창작자들의 출현이 두드러져

대학시절 노래패 활동을 거쳐 대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박창근은 지역을 곳곳이 지키고 있는 지역음악인으로서의 존재감과 함께 대학 노래운동의 쇠퇴와 맞물려 민중가요 진영으로 후배들이 잘 응원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민중가요계에서 솔로로는 거의 막내의 위치에 해당하는 그는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적 특성보다 더 특별한 것은 그의 음악이다. 1999년 독립음반 'Anti Mythos'를 냈을 때부

터 그는 기존의 민중가요와는 확연히 다른 문제의식을 선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기존의 민중가요들이 현실세계의 부조리나 권력의 문제에 접근할 때 대체로 계급적 관점이나 인간중심적 관점으로 접근했던데 반해 그는 자신이 본 세상 모습을 그저 진솔하게 담아내려 노력했다. 그는 어떠한 일관된 세계관으로 세계를 분석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다만 자신의 주변을 소년적 감수성에 담아 드러냄으로써 세계의 부조리와 모순을 극대화시키는 노래를 들려주었다. 1집에 담긴 그의 노랫말은 다소 미숙한 듯 하였으나 소박한 진정성이 있었고 특히 김광석과 김두수와 김창완과 전인권을 뒤섞어 놓은 듯한 묘한 아우라가 있는 그의 탄탄한 보컬은 많은 선배 창작자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다.

#### 묘한 아우라가 있는 그의 탄탄한 보컬

그의 첫 앨범은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박창근의 존재를 알리기에는 충분했고 그는 이후 서울로 활동무대를 확장하여 밴드 관객을 꾸리며 활동하게 된다. 이즈음 박창근은 자신이 1집을 내면서부터 가져왔던 문제의식을 더욱 발전시켰고 당시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인간세계 모순의 근원에 해당하는 우주적 질서와 운명을 고민하고 있음을 고백한 바 있다. 현 사회운동의 정치적 슬로건과 투쟁만으로는 결코 세상이 달라질 수 없다면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그의 고민이었다. 결국 그는 더욱 깊어지는 음악적 고민을 풀기위해 2001년 말부터 다시 솔로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이제 곧 그간의 고민을 담은 박창근 2집을 내놓을 예정이다.

자신의 홈페이지(<http://www.withus.wo.to/>)를 통해 이미 그간의 창작물을 선보여온 박창근의 음악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생태적 세계관의 전면적 등장이다. 오래전 인터뷰에서부터 평화와 상생의 이치를 찾는다 했던 그는 채식주의자, 평화주의자로서 자신의 고민을 정리한 듯한 창작물들을 다수 선보이고 있다. 그는 '인간의 불행 또한 다른 생명체의 불행을 먹고 살죠' (이런 생각 한

번 어때요?)라며 인간의 오랜 육식문화에 대해 의견을 제기한다. 그는 '이 세상에 군대와 사람들의 재앙이 왜 있는지 알고 싶거든 깊은 밤 도살장에서 들려오는 가여운 비명소리에 귀 기울여 보게' (귀 기울여 보게) 라는 노래를 통해 육식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전쟁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을 말하고 있는 듯 하다. '육식을 탐하지 않으며 하늘이 허락한 땅이 키운 곡식을 섬기며 살겠네' (나 그대와 함께 살겠네) 등의 곡에서도 그의 일관된 생태철학이 드러난다.

이것은 기존의 민중가요계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인간을 위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거나 지배계급의 환경파괴를 고발하는 정도였는데 반해 획기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미 많은 에코페미니스트들과 생태환경철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담론이지만 이것이 민중가요진영에서 이야기된 적은 없었다. 더욱이 박창근은 온전히 자신의 고민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도달하였으며 스스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 생태적 세계관을 담은 음악세계

그의 두 번째 앨범이 아직 나오지 않아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담겨질 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박창근의 새 노래로 인해 민중가요계의 음악철학이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박창근은 아직 충분히 젊고 노래에 대한 열의 또한 넘치니 앞으로 노래운동 진영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창작자로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이것이 한 장의 개인 앨범과 또 한 장의 팀 앨범만을 낸 젊은 창작자를 자신 있게 소개하는 이유다. 더 나은 세상을 고민하는 이들 모두가 박창근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



서정민갑

진보적 음악운동단체인 한국민족음악인협회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다. 공연기획, 음반제작, 음악강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문화의 시대를 만들고 싶은 것이 그의 꿈이다. 문화와 관련한 자유로운 글쓰기도 즐기고 있다.